

해커 공격

월요일에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해커들이 *OxOmar* 라는 ID 로 이스라엘에 위치한 서버에서 훔친 14,000 건의 신용카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은 목요일에 11,000 건을 추가 노출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재정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인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인터넷 보안에 대한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엘과 시편 91 편

2 주 연속 저희 공동체의 지체가 아랍 무슬림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엘(Yoel J.)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 한 갑을 훔치는 듯했습니다. 말싸움과 실갱이가 일어났습니다. 요엘은 그 남자를 편의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명이 더 나타났는데, 그 중 한 명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달려들어 그 사슬로 요엘을 때렸습니다. 요엘은 겨우 버텨내기는 했지만, 병원에 실려가서 머리를 18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저희는 요엘의 치유와 시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 91:7, 10, 11** -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직면하게 될수록 이 시편에 묘사된 초자연적인 보호가 우리에게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기록

2011 년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 방문자 수가 140 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이 죽음의 수용소에 간직된 역사적 진실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옹호자 혹은 참소자

I. 말의 왜곡

사탄은 말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사탄이 처음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는 말을 던지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는 말을 왜곡합니다. 그러면 불신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예수아처럼 될수록, 우리를 향한 오해와 왜곡된 말의 공격이 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책임을 한 마디의 말을 기다렸다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버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눅 20:20**).

거절과 비난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기 위해 마귀의 입에서 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계 12:15).”** 히브리어/아랍어 단어 알레호ם(Alehom)은 "어떤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한 비난과 중상의 광범위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악의 홍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 59:19**).

II. 참소자 혹은 옹호자

불신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조차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비난과 불평을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상담" 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불평을 가져와 서로의 등 뒤에서 악한 소문과 말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참소자이거나 옹호자이죠.

계 12:10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일 2:1 –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옹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소자는 사탄이고 옹호자는 예수아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참소자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옹호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내 형제자매를 변호하는 이들 중에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중상하는 자들 중에 있는가? 나는 형제들의 참소자인가 아니면 옹호자인가?"

III. 언약과 십자가

우리가 오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1) 언약적 대화, 그리고 2) 십자가를 따르는 방법.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화해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예배, 성만찬, 십일조나 종교적 의례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 18:15)."** 누가 먼저 갑니까? 만일 상대방이 상처를 주었으면 우리가 찾아 갑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가 찾아 갑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에게겐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관계를 치유하여 우리 형제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적 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또한 일방적이고 풍성하며, 반복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 18:22).”** 이렇게 은혜로운 용서의 태도는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만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태도는 언약적 대화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용서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대화가 있을지라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골 3:13**). 그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화해를 가져오고 연합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